

Global Defense News

2016년 11월 24일 (목) 제1538호

국방기술품질원 방산정보팀은
지난 Global Defense News와
더 자세한 해외기술정보를 온라인으로
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인터넷망 (<http://www.dtaq.re.kr>)
 >> 글로벌디펜스뉴스
- 국방망 (<http://dtaq.mnd.mil>)
 >> 글로벌디펜스뉴스

 **국방기술품질원**
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
www.dtaq.re.kr 055-751-5370,5386

■ 무기체계 소식

C4ISR 미 L-3사, 특수부대용 3세대 쌍안 야시경 보급 예정

기 동 러시아, 특수부대용 대형 무개사륜차 최초 시제 2017년 2월 공개 예정

함 정 · 항 공 미 리하이대, 항공기 날개 소음을 감소시키는 코팅 개발

화 력 · 방 호 러시아, 최신 '발사 후 망각 방식' 대전차 미사일 개발 예정

전재·인용 시 '국방기술품질원'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미 L-3사, 특수부대용 3세대 쌍안 야시경 보급 예정

- 미국 L-3사는 미 특수부대 전투원에게 야간 전투 및 감시활동용 쌍안 야시경(BNVD)을 보급할 예정임.

※ BNVD: Binocular Night Vision Devices

- AN/PVS-31 쌍안 야시경에 대해 4,950만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
- AN/PVS-31은 콤팩트한 경량의 3세대 이중 튜브 야시경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고, 단일 튜브 야시경에 비해 탁월한 상황인식 능력을 제공

- 미 특수작전부대는 쌍안 야시경을 이용하여 저(低)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보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.

- 쌍안경은 크기, 무게, 전력소모가 적은 백색 형광체(white phosphor) 튜브를 장착
- 또한 해상도를 증가시키고, 추가적인 작전 효율성도 제공
- 쌍안 야시경은 L-3사의 기존 야시경 AN/PVS-15의 후속 제품으로, 맞춤형 영상품질 최적화를 위한 초점 조정이 특징이며 단안경으로도 사용 가능



AN/PVS-31 쌍안 야시경

| 출처 | L-3 to provide Special Forces night vision, militaryaerospace.com, 2016. 11. 16.

러시아, 특수부대용 대형 무개사륜차 최초 시제 2017년 2월 공개 예정

- 러시아는 특수부대용 대형 야지차량인 무개사륜차(buggy) 시제차량을 2017년 2월에 공개할 예정임.
 - 체첸에서 제작될 대형 무개사륜차를 에프 모터 스포츠사와 설계 중
 - 무개사륜차는 공격·정찰·구조·순찰·간부용으로 초원이나 사막, 산악에서 운용하도록 설계
- 본 무개사륜차는 최대속도 130km/h로 완전군장 병사 6명을 수송하며, 특수임무부대용으로 체첸 국제훈련센터가 설계함.
 - 전장 4m 이상, 중량 1.5톤, 최대속도 130km/h
 - 코르드(Kord) 및 페체네그(Pecheneg) 기관총과 자동유탄발사기를 탑재하고, 드론 발사기 수송 가능
- 다목적 경량 사륜 무개차 알라바이(Alabai)는 체첸 구데르메스의 훈련소에서 시험을 마쳤으며 2017년에 양산할 계획임.
 - 승무원 3명에 최대 250kg의 하중을 수송
 - 러시아에서 체첸 연구진에 의해 설계됐으며,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다양한 시험을 거쳤고 구성품 95%는 러시아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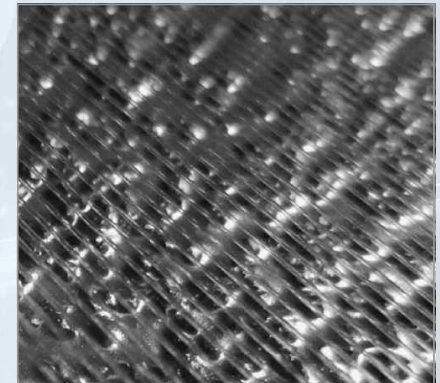


니바(Niva) 차량 새시를 기반으로 한 무개 사륜차

| 출처 | First heavy buggy for Russian Special Forces will be presented in February next year, armyrecognition.com, 2016. 11. 10.

미 리하이대, 항공기 날개 소음을 감소시키는 코팅 개발

- 리하이(Lehigh) 대학 연구진은 부엉이의 날개를 모방한 비행면 소음감소 코팅을 개발하였음.
 - 항공기, 풍차 등의 날개소음을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이 부엉이의 소음 없는 사냥 비행을 연구
 - 연구 대상은 부엉이 날개 깃털 구조의 특징인 앞전의 털, 뒷전의 다공성, 윗면의 솜털 등
 - 리하이대 연구진은 세 번째 특징인 윗면 솜털을 모방한 소음저감 표면코팅과 그 효과에 대해 연구
 - 세 가지 특징 중 앞의 두 주제는 시험결과와 함께 다른 대학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음.
- 날개 면에 인공섬유를 달아 공기흐름 방향으로 눕게 하여 30%의 표면을 가릴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.
 - 표면에 덮인 인공섬유는 표면의 공기압력 변화를 현저히 감소
 - 표면에서 발생되어 퍼지는 중음대역의 소음을 차단
 - 정량적으로 약 10데시벨의 소음 감소효과 발생
 - 이 연구는 2015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, 최근 학술지 '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'에 게재되었음.



실험에 사용된 인공섬유 코팅

| 출처 | Owl-inspired wing design reduces wind noise by 10 decibels, jsciencedaily.com, 2016. 11. 16.

러시아, 최신 '발사 후 망각 방식' 대전차 미사일 개발 예정

- 러시아는 '발사 후 망각 방식'으로 운용되는 신형 차세대 첨단 자주 대전차 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함.
 - 미사일의 효율성 · 위력 · 적의 대응책에 대한 저항능력을 개량하고 미사일 제어 자동화 기능을 추가 개선할 예정
- 현재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자주 대전차 미사일 체계는 흐리잔테마(Khrizantema)-S와 시트룸(Shturm)-S임.
 - 흐리잔테마-S는 KBM 기술설계국 주도로 개발되어 1996년에 최초 공개
 - BMP-3 장갑차를 개조하여 대전차 유도미사일 체계 흐리잔테마 2기를 탑재
 - 9M123 미사일 비행속도는 평균 마하 1.2이며, 최대 사거리는 6km
 - 시트룸-S는 1970년대 중반에 개발되어 1979년부터 구소련 육군에서 운용
 - 궤도형 장갑 차대 MT-LB를 사용
 - 9M114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km
 - 최신행 미사일인 9M114M1(사거리 6km) 및 9M114M2(사거리 7km)는 800mm 두께의 폭발반응장갑을 관통



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흐리잔테마-S

| 출처 | Russia will develop a new generation of anti-tank missile using fire-and-forget technology, armyrecognition.com, 2016. 11. 21.